

Over there	
참여 작가	양하 (Yang-ha)
전시 기간	2026 년 10 월 15 일 – 2026 년 11 월 14 일 (오프닝 리셉션 : 10 월 15 일)
장소	FIM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11, 2 층)
개관 시간	화-토 11:00 – 18:00 (일, 월 휴관)
주최, 주관	핼 (FIM)
후원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2026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선정)

전시 내용

핼(FIM)은 2026 년 10 월 15 일부터 11 월 14 일까지 《Over there》를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암스테르담과 서울을 오가며 활동하는 한국 작가 양하(b.1994)의 회화와 설치 작업 20 여 점이 전시됩니다. 작가는 '이동'과 '경계', 그리고 무언가가 전달되는 '메시지'의 과정에 주목합니다. 먼 곳에서 출발한 메시지가 이동하고 도달하는 과정을 하나의 편지에 비유하며 보낸 이의 과거와 받는 이의 현재 사이에서 메시지의 의미가 새롭게 해석되고 그 과정 속에서 경계가 변화하는 순간을 포착합니다. 특히 산업용 기계를 운송했던 방수포를 활용한 조각적 기동으로, 이동과 보호의 기능을 지녔던 물질이 새로운 장소에서 다른 의미와 형태를 갖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안과 밖, 앞과 뒤, 멀리와 가까이 같은 구분이 이동에 따라 변화하고 재구성되는 모습을 탐구합니다.

전시 서문

양하, Over there

글 박주원 (독립 큐레이터)

전해지는 것들은 언제나 과거를 동반한다. 시작되는 때의 무엇이 전해진 뒤와는 다를 것이다. 시작점과 전해지는 순간이 같다고 해도 그건 시점에 따라, 몇 초 전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언제나 상황은 그런 것이다. 전해지다가 과거가 되는 것. 시작점은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것. 메시지(message)라는 단어는 '보내다'라는 라틴어 '미테레(mittere)' 또는 그 과거 분사형 '미숨(missum)'에서 왔다. 보내는 것, 누군가가 보낸 어떤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결국

받는 사람이 해석하게 된다. 메시지가 수신자의 손에 닿았을 때 발신자의 순간은 이미 과거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받는 사람은 그때 남겨진 흔적을 통해 보낸 사람의 과거를 짐작할 뿐 그 의미의 전부를 알 수는 없다. 그러므로 전해지는 것에는 언제나 과거와 해석의 가능성이 함께 따라온다. 그리고 메시지는 무엇보다 먼저 그것을 메시지라고 발견하는 사람에게 비로소 나타난다. 의미를 해석하기 전에 이것이 '읽어야 할 무엇'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과정이 선행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내진 메시지는 그것을 발견하고 읽는 사람에게만 의미를 갖는다.

이번 전시를 준비하며 양하가 처음 이야기했던 것은 경계석이었다. 경계석은 돌을 특정한 자리에 놓음으로써 여기와 저기를 구분한다. 돌 자체에 처음부터 경계라는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 그것을 그 자리에 두고, 또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발견하고 읽으면서 돌은 하나의 표식이 된다. 그 돌을 중심으로 기준이 생기고 안과 밖이 나뉜다. 작가의 경계석에서 시작된 관심은 점차 돌 자체보다 그것을 경계로 받아들이게 하는 사회적 규범과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의 의미가 시간과 장소를 옮기며 다시 작동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돌을 놓는 것은 경계만을 만드는 행위는 아니다. 유대인에게는 죽은 이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의미로 묘석에 돌을 올려놓는 오래된 풍습이 있다.¹ 누군가 올려놓은 돌은 그 사람이 떠난 뒤에도 그 자리에 남는다. 그리고 이후 그곳에 도착한 사람은 이미 놓여 있는 돌을 발견한다. 돌 하나가 기억 자체인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놓았다는 행위를 남긴다. 과거의 한 사람이 남긴 돌은 현재의 다른 사람에게 발견되고, 다시 기억해야 할 무엇을 가리킨다. 나는 이 두 돌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나는 여기와 저기를 가르고, 다른 하나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다. 그러나 둘 모두 누군가 그것을 특정한 자리에 놓으면서 의미를 갖고 무게를 지니게 된다. 그리고 그 의미는 그것을 발견한 사람에게서 다시 이어진다.

양하의 작업에서도 이런 이어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작가의 회화에서 하나의 사물은 자주 다른 것을 닮는다. 익숙한 사물과 장면은 작가의 시선을 통과하며 본래의 의미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그 위에 또 다른 이미지와 감각을 만들어낸다. 무엇인가를 직접 설명하기보다 일부를 지우거나 남기고, 사건의 중심보다 주변의 흔적과 작은 징후에 시선을 두는 방식이다. 그래서 화면 안에는 이미 지나간 일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동시에 머무는 듯한 긴장이 생긴다.

인물이나 서사가 사라진 자리에도 사건의 기척과 무게는 남아 있고, 문과 아치, 액자처럼 안과 밖을 나누는 형식들은 화면 너머의 공간을 계속 상상하게 한다. 우리는 사건의 시작과 끝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양하의 화면에 남겨진 흔적을 따라 그 이전과 이후를 가늠하고 보이지 않는 장면을 상상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의 경계석은 양하의 작업에 등장하는 여러 이미지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돌 하나가 어느 순간 '여기부터'와 '저기까지'를 표시하는 표식이 되듯, 양하의 그림에 등장하는 소재들 역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경계를 가리키며 새로운 의미를 얻는다.

¹ 자크 데리다, 「롤랑 바르트의 죽음들」, 롤랑 바르트, 자크 데리다, 『강의 | 롤랑 바르트의 죽음들』, 김예령 역, 문학과 지성사, 2025, p.61의 각주 2번 참고.

이처럼 양하는 누군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다른 것과 연결하는 순간, 그 사물이나 이미지는 표지가 되고 그곳에서 새로운 의미가 생겨남을 보여준다. 그렇게 생겨난 의미는 장소와 시간을 넘나들며 조금씩 다르게 변주된다.

그래서 이번 전시를 바다를 건너온 하나의 편지를 꺼내어 읽는 과정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한다. 편지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코르크 마개로 닫힌 병 안에 줄로 한 번 묶여 들어 있는 양피지 편지. 유리병은 메시지를 품고 바다 혹은 땅을 지나며 시간을 보낸다. 누군가의 손에 그 메시지가 전달될지는 미지수이지만 그저 유리병의 편지는 전해지는 것이다. 어떤 이는 편지를 쓰고 줄로 묶어 유리병 안에 넣은 뒤 병을 닫아 이동시킨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는 떠밀려온 유리병을 발견하고, 병을 열고, 묶인 줄을 풀어 편지를 펼친다. 어떤 이의 과거와 누군가의 현재 사이에서, '그' 메시지의 의미는 유동적인 것으로 변한다. 양하의 작업은 이런 유리병 안의 편지처럼, 세월에 번져 여러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글자들처럼, 발신된 것의 과거와 수신된 것의 지금을 함께 담아낸다.

이번 전시에서 이러한 의미의 이어짐과 이동, 경계의 흔들림은 실제 조형물로도 구체화된다. 한국 창원에서 네덜란드 아른헴으로 운송된, 기계를 감싸고 있던 방수포와 고정용 끈은 전시장 안에서 하나의 조각적 기둥이 된다. 작가는 한 차례 이동을 겪은, 사물을 보호하기 위한 외피였던 방수포를 다시 접고 옮길 수 있는 가벼운 기둥의 형태로 만들었다. 몇 달 동안 이동하며 먼지와 흔적이 쌓인 방수포 자체가 단순한 바탕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작가는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대신 자수를 더했고, 그렇게 이동의 흔적과 작가의 이미지가 하나의 표면에서 겹쳐진다. 방수포에는 창원에서 아른헴까지 실제로 이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운송 송장이 남아있다. 작가는 그것을 그대로 두고, 비슷한 크기의 천에 자신의 그림에서 반복해서 사용해 온 도상과 스케치를 작게 자수해 붙인다. 하나는 사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기록하고, 다른 하나는 작가가 보고 그려온 이미지들이 어떻게 이동해 왔는지를 보여준다. 실제 이동의 기록과 이미지의 기록이 나란히 놓이며 작가의 그림 역시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라는 송장처럼 보인다. 접어서 한국으로 온 방수포는 기둥이 되어 몸을 얻는다. 그것은 하나의 기준이면서도 고정되지 않은 경계를 만들고, 상상으로 덧붙여진 무언가의 역사와 미래를 생각해보게 한다. 이렇게 '그 어딘가'에서 '이곳'을 향해 이동해 온 방수포와 양하가 지속적으로 그려온 회화는 전시장에서 이어지며 새로운 이야기의 매개가 된다.

다시 처음의 양하가 말했던 경계가 되던 돌을 생각한다. 누군가 하나의 돌을 가져다 놓으며 이곳과 저곳을 표시한다. 누군가 돌을 올려놓고 떠난 뒤 다음 사람이 그것을 발견한다. 그 돌을 놓은 사람의 시간은 이미 과거가 되었지만, 돌은 남아 그것을 발견한 지금의 사람에게 무언가를 전한다. 양하의 작업에서 서로 다른 이미지와 사건들은 그렇게 이동과 연결, 경계라는 감각 안에서 이어진다. 어떤 이미지는 소식을 전하는 표지가 되고, 어떤 흔적은 이미 무언가가 일어났음을 알린다. 무언가는 보이지 않는 반대편을 생각하게 하고, 기계의 옷이었던 방수포는 바다를 건너와 조각이 된다. 저쪽에 있던 것은 이쪽의 것이 되고, 외부에 있던 것은 내부로 들어온다. 이전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그대로 보존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흔적을 남긴 채 다음 장소와 다음 사람에게 도달한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상상과 기억을 동원해 다시 의미를 만든다.

메시지는 전해진다. 그것은 언제나 과거를 동반하며, 시작점은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남는다. 누군가 남겨놓은 작은 표식들은 저곳에서 이곳으로 계속해서 도달한다. 그리고 먼 곳에서 시작된

의미는 마침내 이 전시장에서, 그것을 발견한 당신에 의해 다시 만들어진다. 양하의 메시지는 이렇게 전해진다.

작가 소개

양하는 암스테르담과 서울을 오가며 작업하는 페인터이다. 사회적 사건과 집단의 기억이 개인에게 도달한 뒤 어떤 이미지로 변형되고 남는지에 관심을 두고 작업한다. 폭발, 구름, 창문 등을 반복해서 그리며 현실의 사건과 개인의 기억 사이에서 생기는 어긋남을 그린다. 개인전으로 《Unfake Fantasy》(Enseoul Gallery, 암스테르담, 2026), 《Open the Window》(OCI 미술관, 서울, 2023) 등이 있다. 최근에는 수태고지의 도상과 일상에서 발견한 이미지들을 차용하고 변형하며, 회화 속 이미지와 공간이 화면의 경계를 넘어 기둥과 같은 구조로 확장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공간 소개

작품으로의 완전한 몰입 상태, 'Free Immersion'을 의미하는 FIM은 국내외의 역량 있는 젊은 미술 작가들이 자신의 작업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객들에게 깊이 있는 예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우리는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잠재력 있는 작가들의 실험적인 시도와 성장을 함께하며, 해외 갤러리 및 큐레이터와의 협력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높은 수준의 전시를 선보이기 위해 꾸준히 연구할 것이다.

대표작 이미지



양하, *A Very Tiny Event_8*, gouache, oil and acrylic on canvas, 2026, 80 x 80cm

이미지제공 양하



양하, *A Very Tiny Event_2*, gouache, oil and acrylic on canvas, 2026, 65 x 60cm

이미지제공 양하